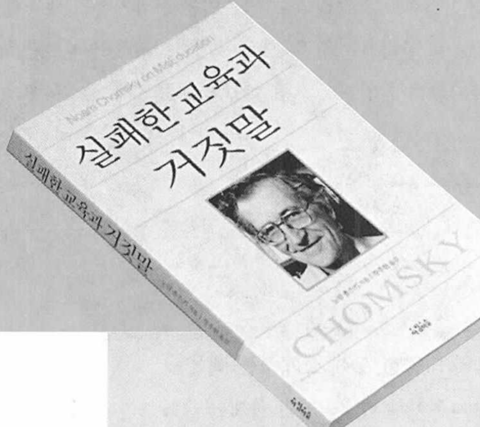
# 낯익어 오히려 당혹스러운 촘스키의 교육론

## 노암 촘스키의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을 읽고

정진권 |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강주헌 옮김
아침이슬/A5신/270면/8500원

**촘스키는 이 책에서 미국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테러행위를 고발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한 책 제목이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학교는 사회의 지배계급, 즉 부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주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한국인의 머릿속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처럼 각인돼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 표어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었던 나라다. 또한 우리는 이런 말이 단순한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통치기구인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사이의 균형과 상호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과 법률 등에 명문화돼 있고, 이런 제도들이 정치를 통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공산국가인 구 소련이 무너진 이후 어떤 국가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세계 최강국이자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도, 미국이 이란을 응징하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의 국가적 모토인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고 믿고 있다.

### 미국은 민주국가인가?

과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세계적 언어학자로 널리 알려진 노암 촘스키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다'고 부르짖는다. 그는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이면서 미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대학자다. 그의 관심은 비단 언어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철학·사회학·생물학·인지과학을 넘나들고 있으며, 세계 인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국가인가? 촘스키에 따르면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소수에 의해 움직여지는' 현대판 귀족국가다. 미국은 "지성과 힘을 겸비한 귀족주의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소수가 "무지하고 무식하며 무능력한 대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사회다. 미국 사회의 귀족은 자본가 계급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이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치가와 언론인들이다.

미국은 카리브연안과 중앙아메리카 등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이들 국가에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니카라과의 경우, 미국의 테러가 있기 전까지는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문맹과 아동의 영양부진을 퇴치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테러가 시작되면서,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 이제는 아이티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81쪽). 촘스키에 따르면, 미국의 쿠바에 대한 테러행위도 니카라과 못지 않다. 이런 미국의 테러행위는 비단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유럽과 연합해 벌이고 있는 코소보와 이라크의 공습도 "인도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테러행위와 잔혹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애정,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짓밟히고 테러당하고 있는 약소 국가에 대한 짙은 애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 지배계급의 이익 대변하는 교육기관

이 책의 주제와 내용은 이와 같이 주로 미국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테러행위를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촘스키는 왜 이 책의 제목을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이라고 했을까? 그는 "학교는 사회의 지배계급, 즉 부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만들어진 기관"(33쪽)이며, "교육의 장인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학생들은 권력집단, 주로 기업집단을 옹호하도록 사회화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미 1960년대에 미국에서 발간된 《학교는 죽었다》《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학교교육》 등의 책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많은 논란을 거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더이상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됐다. 2천년대에 우리는 다시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인권투쟁가인 촘스키를 통해 오래되고 고장난 유성기판처럼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된다.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필자는 결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독자들은 어떨까?●